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OECD 국제행사 참여 및 주요국 보건의료AI 정책 및 연구협력 추진

□ 과제명

- 2026 글로벌 보건복지이슈분석을 통한 효과적 대응방안 마련

□ 출장기간

- 2026.5.24.(일)~2026.5.29.(금)

□ 출장국가(도시)

- 스페인(마드리드)

□ 출장자

- 김희년 국제협력팀장(부연구위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해당 인원)
5.24	대한민국(인천) -스페인(마드리드)	국가 간 이동	김희년 부연구위원
5.25	스페인(마드리드)	스페인 보건부 Mnisterio de Sanidad	Digital Health Information and Innovation of the NHS 실장: Juan Fernando Munoz Montalvo / 비서관 : Lucia Escapa Castro
5.26	스페인(마드리드)	Four Seasons Hotel	Francesca Colombo, Mark Pearson, Eric Sutherland, Katarina Vujović
		Four Seasons Hotel	Davina Lim, Chua Ying Hong
5.27	스페인(마드리드)	Four Seasons Hotel	OECD-International Conference team 및 국제행사 참여자
5.28	스페인(마드리드)	International Conference “Responsible Scale of AI in Health	OECD Digital Health Team 및 국제행사 참여자
5.28 -5.29	스페인(마드리드)-한국	귀국	김희년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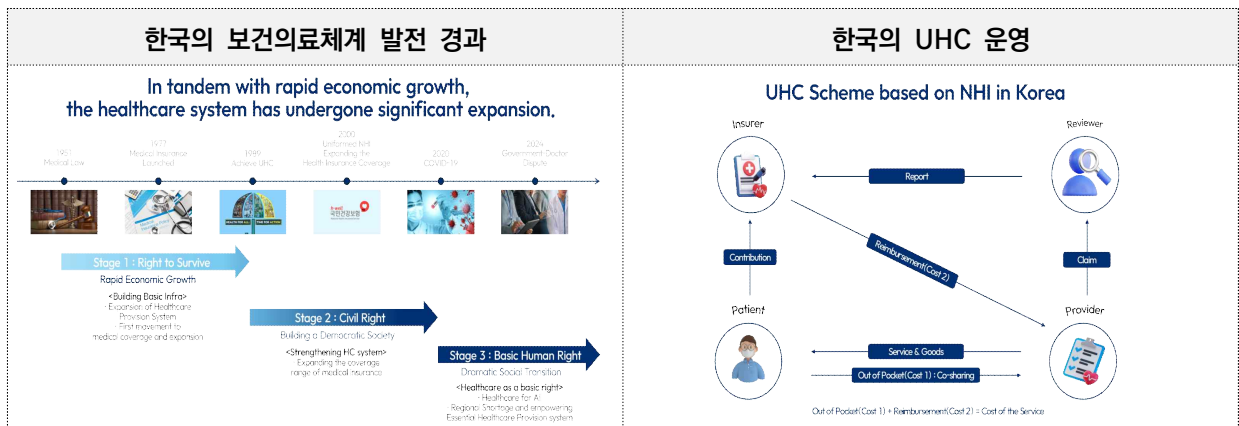
2 출장 주요내용-스페인(마드리드)

①	파리 출발 / 스페인 도착
일 시	2026.5.24.(일)
장 소	인천 국제공항 →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
참석자	김희년 국제협력팀장
국가간 이동	
②	한-스페인 보건의료현황 및 인공지능·디지털헬스케어 전략 논의
일 시	2026.5.25.(월) 12:00-14:00
장 소	스페인(마드리드)-보건부 Mnisterio de Sanidad
참석자	신영석 원장, 김희년 국제협력팀장 (실장) Juan Fernando Munoz Montalvo, (비서관) Lucia Escapa Cas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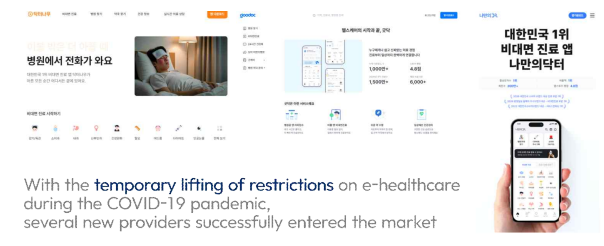
○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소개 및 디지털헬스 및 AI 기본의료전략 소개

1.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소개

-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발전 경과: 한국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보건의료체계를 갖추었으나 민간 중심의 공급자, 공공의 일원화된 건강보험체제로 UHC를 달성
- 한국의 건강보험체계: 단일보험자 중심의 UHC 체계 운영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독립적인 심사기구가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판단, 의료질 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음.



2. AI기본의료 전략 추진 방향 소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발전 경과	한국의 UHC 운영			
 <p>With the temporary lifting of restrictions on e-healthcar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everal new providers successfully entered the market</p>	<h3>AI-Driven Public Healthcare Highway</h3> <p>An AI-driven public healthcare highway is a core national infrastructure and strategic framework designed to accelerate the deployment of people-centered healthcare services and foster a cutting-edge healthcare ecosystem by seamlessly integrating and combining public health data with artificial intelligence.</p> <p>Purpose To establish a robust foundation for utilizing existing AI solutions, thereby enhancing accessibility to AI-driven healthcare and elevating the overall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s.</p> <table border="0"> <tr> <td data-bbox="837 571 1029 694"> <p>Centralized AI Infrastructure</p> <p>Establish dedicated AI hubs/centers equipped with high-performance GPUs.</p> <p>Provide ultra-high-speed networks specifically optimized for processing medical imaging and large-scale datasets.</p> </td> <td data-bbox="1045 571 1236 694"> <p>Standard-Based AI Service Integration</p> <p>Implement standardized medical data interfaces based on global protocols such as HL7 and DICOM.</p> <p>Secure seamless interoperability between various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and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environments.</p> </td> <td data-bbox="1252 571 1412 694"> <p>Fostering the AI Ecosystem</p> <p>Create deployment-ready environments within public healthcare sectors for clinical AI solutions validated through rigorous real-world testing.</p> <p>Launch hands-on training and case-building programs for medical professionals to maximize the practical utilization of medical AI.</p> </td> </tr> </table>	<p>Centralized AI Infrastructure</p> <p>Establish dedicated AI hubs/centers equipped with high-performance GPUs.</p> <p>Provide ultra-high-speed networks specifically optimized for processing medical imaging and large-scale datasets.</p>	<p>Standard-Based AI Service Integration</p> <p>Implement standardized medical data interfaces based on global protocols such as HL7 and DICOM.</p> <p>Secure seamless interoperability between various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and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environments.</p>	<p>Fostering the AI Ecosystem</p> <p>Create deployment-ready environments within public healthcare sectors for clinical AI solutions validated through rigorous real-world testing.</p> <p>Launch hands-on training and case-building programs for medical professionals to maximize the practical utilization of medical AI.</p>
<p>Centralized AI Infrastructure</p> <p>Establish dedicated AI hubs/centers equipped with high-performance GPUs.</p> <p>Provide ultra-high-speed networks specifically optimized for processing medical imaging and large-scale datasets.</p>	<p>Standard-Based AI Service Integration</p> <p>Implement standardized medical data interfaces based on global protocols such as HL7 and DICOM.</p> <p>Secure seamless interoperability between various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and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environments.</p>	<p>Fostering the AI Ecosystem</p> <p>Create deployment-ready environments within public healthcare sectors for clinical AI solutions validated through rigorous real-world testing.</p> <p>Launch hands-on training and case-building programs for medical professionals to maximize the practical utilization of medical AI.</p>		

○ 스페인 의료체계 소개 및 국가 AI 전략 소개

1. 스페인 디지털 헬스 전략 (ESD-SNS 2021-2026)

- 주요 목표: 환자 중심의 의료 제공,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 제고, 상호 운용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 그리고 5P 의학(인구집단 Population, 예방 Preventive, 예측 Predictive, 맞춤형 Personalised, 참여형 Participatory)을 지향하는 혁신
- 3대 전략적 방향: ▲보건 부문의 디지털 공공 서비스 개발, ▲국내외 보건 정보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 촉진, ▲데이터 분석 및 정보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보건 데이터 공간(National Space for Health Data)' 구축
- 주요 실행 분야: ▲건강 위협 및 위험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일차 의료(Primary Care)의 디지털 전환 및 맞춤형 디지털 치료 지원, ▲전국적으로 공유 가능한 지능형 디지털 건강 기록(HSD) 모델 개발 및 의료 영상(Diagnostic Imaging)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
- 실행 및 재정: 유럽연합(EU)의 회복 및 복원력 자금(NextGenerationEU 등)을 바탕으로, 중앙 보건부와 자치주(Autonomous Communities)가 협력

2. 국민보건시스템 인공지능 전략 (eIASNS)

- 비전 및 미션: 책임감 있고 윤리적이며 형평성 있는 AI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 국민의 건강 관리를 지원
- 4대 전환 축 (Lines of Transformation): ▲신뢰성 (Reliability)- AI 거버넌스 확립, 윤리적 사용 보장, 알고리즘의 기술적·법적 규제 준수 평가, 그리고 알고리즘 마켓플레이스 구축 /▲유용성 (Utility)- 임상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도입, 의료 영상 등 진단 지원, 정밀 의학 및 치료 의사결정 지원/▲인간 중심 (Humanism)- 환자 및 사용자의 역량 강화, 건강 교육 및 심리적 동반을 위한 AI 활용, 맞춤형 치료 계획 및 디지털 내비게이션 비서 제공/ ▲보편성 (Universality)- 의료 수요 예측 및 자원의 효율적 할당, 공중 보건 알림을 위한 예측 모델링, 보건 인프라의 에너지 최적화(Green AI)/▲거버넌스 체계-국가 거버넌스(SNS AI Office)와 각 지역의 거버넌스(자치주 AI Office)가 협력하는 연합(Federated)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 및 전국적인 알고리즘 레지스트리를 운영

- 예산: AI 인프라 구축, 데이터 분석 활성화, 프로세스 재설계 등을 위해 총 2억 9,700만 유로의 예산을 배정

3. 평가

- 두 전략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스페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디지털화 할 수 있도록 설계
- 수집된 양질의 보건 데이터를 통해 AI를 훈련·적용하고, 이를 통해 환자에게는 맞춤형 예방 및 치료를 제공하며 의료진에게는 행정 부담 감소와 임상 의사결정 지원을 제공하는 선순환적, 미래지향적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 한-스페인간 향후 연구협력 등 상호협력 체계 논의

- KIHASA와 스페인 보건부는 향후 연구협력 등을 추가 지속 논의하기로 결정함.

③-1	OECD-Digital Health Team & KIHASA 향후 상호협력 논의
일 시	2026.5.26.(화) 10:00-12:00
장 소	스페인(마드리드)-Four Seasons Hotel
참석자	신영석 원장, 김희년 국제협력팀장 Francesca Colombo, Mark Pearson, Eric Sutherland, Katarina Vujović

○ KIHASA-OECD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논의

- 현재 글로벌 보건의료 지형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AX)의 급격한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음
- 전 세계 보건의료 시스템이 인구 고령화와 보건의료 인력 감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함에 따라, AI는 단순히 미래의 비전적 개념을 넘어 구조 개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도구로 자리 잡음.
- 이에 따라 OECD 회원국 내에서는 AI 도입의 임상적 안전성, 윤리적 무결성,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을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는 시급하고 공통된 필요성이 제기
-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역량을 갖춘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음
-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와 단일 보험자 체제인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의 포괄적인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AI 기반 보건의료(AI-Driven Healthcare)' 국가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음
- 보건복지 정책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은 이러한 과도기적 변화의 최전선에서 디지털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 설계와 건강보험 수가(reimbursement)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연구 성과는 다자간 거버넌스를 통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으며 제안이 현실이 될 수 있음
- 한국의 실증적 성과와 OECD의 권위 있는 분석 프레임워크를 결합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그 어떤 국가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건의료 AX의 글로벌 표준을 공동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협력을 추구함.

③-2	싱가폴 보건부 미래체계와혁신과, 보건의료기술정책과 면담
일 시	2026.5.26.(화) 14:00-16:00
장 소	스페인(마드리드)-Four Seasons Hotel
참석자	신영석 원장, 김희년 국제협력팀장 미래체계와혁신과장- Davina Lim, 보건의료기술정책과장-Chua Ying Hong
<p>○ 한국의 ASEAN협력 의지 및 KIHASA의 역할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ASEAN 협력을 위한 전략 수립을 수행하고 있음. - 대한민국 정부는 ASEAN 국가를 한국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향후 공동위기(고령화,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지속적 협력할 우방국으로 인식하고 있음. - 특히 공동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KIHASA는 한국 보건복지정책의 싱크탱크로서 협력을 위한 정책제언 등에 기여해오고 있음. <p>○ 싱가포르 보건부 소개</p> <p>1. MOH Future Systems & Innovation Division (FSID): Driving Ecosystem Innovation and Scaling Proven Technolog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전략 수립 및 지평 스캐닝(Horizon Scanning): 싱가포르 보건의료 생태계 전반에 적용 가능한 혁신 전략을 수립하며, 임상적·비용 효과성이 높은 미래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탐색·검토 - 핵심 기술 마스터플랜 수립: 인공지능(AI), 로봇 공학 및 자동화, 임상 3D 프린팅 등 공공 보건의료 시스템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 기술을 주류(Mainstream)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국가 계획 설계 - 보건혁신펀드(MOH Health Innovation Fund) 운영: 보건혁신펀드 및 자금 지원 전략을 총괄·집행하며, 보조금 투자 성과를 측정·추적하여 펀딩 활동이 실질적인 보건의료 혁신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 - 다자간 파트너십 및 제도화(Scale-up): 국내외 핵심 이해관계자(의료 클러스터, 연구기관 등)와의 관계 관리를 통해 검증된 혁신 기술이 실험실에 머물지 않고 국가적 규모의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확산(Translation) 경로 구축 <p>2. HealthTech Policy & Regulation: Establishing Governance, Safety Standards, and Responsible AI Framework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기술 지침(HealthTech Instruction Manual, HIM) 제정: 공공 보건의료의 데이터 거버넌스, 시스템 디자인, 사이버 보안 baseline, 인프라 운영 및 폐기 등 기술 스택 전반에 대한 표준 정책과 리스크 기반 가이드라인을 수립 - 책임감 있는 AI 가이드라인(AIHGLE 2.0) 개발: 보건복지부와 보건과학청(HSA)이 공동으로 AI 의료기술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며, 개발자·도입기관·의료 전문가 간의 책임 소재와 투명성 기준 설정 -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공유 규제: 의료기기 및 기술에 대한 사이버 기술 요구사항(MDOTS)을 설정하여 해킹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고, 부처 및 기관 간 안전한 데이터 	

공유 규칙을 정립해 '통합 디지털 보건의료'를 구현

- **디지털 헬스 혁신 제품 규제 지원:** 테크 기반 의료 기기(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AI 솔루션 등) 개발자를 위한 컨설팅 스킴을 운영하고, 해외 주요 규제기관의 승인을 연계한 신속 등록 경로를 마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디지털 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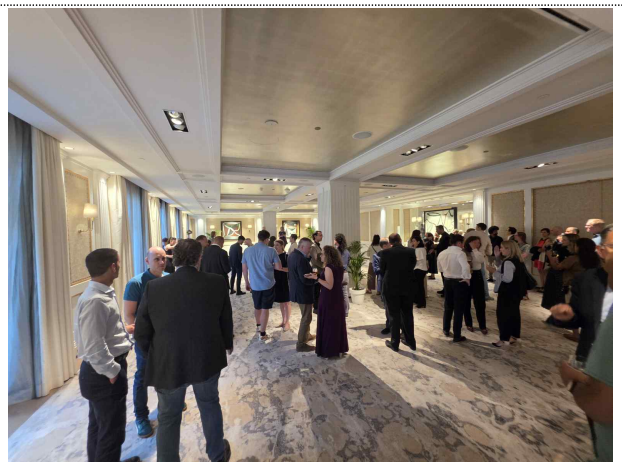
○ **향후 협력 체계 논의**

- KIHASA와 싱가포르 보건부는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향은 향후 비대면회의 등을 통해 추진

④	Responsible Scale of AI in Health-사전행사
일시	2026.5.27.(수) 16:00-19:00
장소	스페인(마드리드)-Four Seasons Hotel
참석자	신영석 원장, 김희년 국제협력팀장, 조수진 부장(심사평가원)

○ **OECD와 스페인 보건부의 공식 행사 추진 배경 및 목적 소개**

- **기술 확산과 시스템 전환의 불일치:** 보건의료 분야의 AI 투자는 지난 10년간 6배 이상 급증했으나, 실제 대규모 건강 결과(health outcomes)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국지적인 시범사업(Pilots)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 **본질적인 문제는 '시스템'의 부재:** AI 확산의 실패는 기술적 한계가 아닌 조직, 인력, 거버넌스에 대한 투자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이며 기술적 전파를 시스템의 변화로 오인하여 human investment(인적 투자)를 과소평가한 결과임.



- **인프라 결여에 따른 비용 기하급수적 증가 예상:** 사람, 프로세스, 정책 등의 '기반 조건(Enabling conditions)'이 조기에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AI를 전면 도입(Full deployment)하면, 가치는 정체되는 반면 관리·운영 비용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속 불가능한 격차가 발생할 것임.

- 이에 OECD는 다자간의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건의료 AI가 장기적인 부채가 아닌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 공유 데이터 인프라, 상호운용성 표준 구축 등 국가 간 균형 있고 조직적인 공동 행동(Collective action)과 마드리드 행동 계획(Madrid Action Plan)과 같은 구체적 로드맵이 실행될 필요가 있어 해당 행사를 계획 추진함.

⑤	Responsible Scale of AI in Health
일시	2026.5.28.(목) 10:00~16:30
장소	스페인(마드리드)
참석자	신영석 원장, 김희년 국제협력팀장, 조수진 부장(심사평가원)

○ Opening Remarks

- Javier Padilla Bernaldez : 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 보건의료 영역에 AI를 도입함에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AI in Health를 다룰 예정이며 책임성있는(responsible)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임
- ① 생명윤리와 관련하여서도 우리는 규범이 필요함. OECD는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정의로운 사용을 위한 5가지 원칙이 있음 (투명성, 책임성 등)
- AI는 도구이며 우리 시스템에 적용되어야 할 수단임. AI 기술이 변화하는 것이 지대하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②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할 것임. OECD는 이를 위한 Poloting을 추진하고 있음

- Frantlsek Ruzicka: Deputy Secretary-General of the OECD

- AI는 매우 빠르게 세상을 바꾸고 있으며 주요한 질문들이 남음
- ① AI는 무엇인가? : Digital Healthcare가 적용되고 있음. AI는 이미 보건의료 전반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음. Chat GPT 등에 보건의료와 건강과 관련한 질문을 사용하는 이용자들도 매우 늘어나고 있음.
- ② 환자의 안전, 정보의 보안,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의 접근 등 AI 도입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노정되고 있음. AI를 어떻게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 보건의료영역은 인류가 생산하는 정보의 30%를 차지함. 우리는 가치에 투자할 것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임.
- 따라서 Fast Scaling, 보건의료의 윤리(no harm), Financial Hardship- value chain를 향하여 OECD 국가들은 정진해야 함.
 - 3가지 Pillars를 고민해야 할 것임 : (1) Earn Trust: 모든 이용자의 신뢰를 얻어내야함. (2) Enable: Data Asset을 만들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함. (3) Prevent Harm: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해야 함

- Eric Sutherland : Senior Health Economist, OECD
 -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
 - : Australia 보건부 장관 축사
 - : 전체 행사의 기획 의도 및 일정 소개

- Act together 우리 모두가 AI를 도입하는데 협력하여야 할 시점이 도래함. From pilot to scale의 시점에 있는 전세계의 보건의료체계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임.
- OECD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으며,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를 기획해 옴.
-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효과성에 관한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었다는 것임. 특히 무분별한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의 도입이었음. 우리는 그래서 전문가가 제안하는 액션 플랜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전문가들이 모여 정말 우리 사회가 어때야 할 지에 대한 상을 그리고 그 가이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자 하였음.
- 의료 영역에서의 Randomized Clinical Trials가 자리잡는데 전세계 전문가들의 주요 논의가 있어온 것처럼, OECD의 비전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 이후 2일동안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지, 보건의료체계 내의 도입을 어느 지점에서 준비해야 하는 가임.

○ Key notes

: Jennifer Dixon : Shifting the patient-provider relationship with Trust

- AI에 대한 거시적 맥락과 담론: 근본적인 신뢰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이 담론을 주도해야 함
- 보건의료 AI 전개 전략 (5대 축) 소개: 법적 프레임워크 / 윤리적 프레임워크 / 규제 체계 및 지침 / 조직 문화 관리 인프라 / 평가 및 검증
- 영국의 조사 결과 AI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음
- Public support: don not take for granted : 대중적인 지지는 그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대중은 대체적으로 AI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위험에 대해 우려가 있었고 젊은 사람일수록 더욱 회의적이었음.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와, AI 도입에 대한 양면에 대해 충분한 이해도가 있어 나타나는 현상일 것으로 보임. NHS 직원들이 기술 수용에 대해 대중에 비해 더욱 긍정적이었음.
- 보건의료인이 신뢰하는 것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 만큼 신뢰성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어떻게 다차원적 AI 도구를 평가하고 관리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AI는 사회-기술적 서비스임. 인간 요소와 운영의맥락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음. 이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도 안될 것임. 영국은 Data Mature Test Beds 연구의 측면에서의 평가와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의 평가로 구분하고 추진 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임.

: Brian Anderson : From Pilot to Practice

- CHAI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책임감 있는 AI 발전을 도모하는 민관 협력 단체(PPP)임.
- 미국 보건의료 생태계 전반의 다양한 학제간 이해관계자들을 결집하여, 보건의료 분야 내 '책임감 있는 AI'의 개발, 평가 및 올바른 활용을 견인하고 있음
- CHAI가 시작되었을 시점에는 책임성있는 AI 도입에 대한 명료한 정의가 없었으며 이를 정리하고 CHAI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정의를 합의함.
 - : 첫째는 유용성으로 AI가 인간에게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 : 둘째는 형평성으로 AI가 창출하는 혜택을 공정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것임.
 - : 셋째는 안전성으로 AI가 개입한 의료 서비스 등에서 그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함.
 - : 넷째는 투명성으로 AI를 개발하고 해당 도구가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데이터, 연산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임.
 - : 다섯째는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로 가용한데이터 뿐 아니라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AI의 활용이 파일럿(사전도입)수준에서 실제 현장에서의 안착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섯 원칙에 대한 운영관리측면의 질문들을 던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When CHAI Started, There Was No Clear Definition Of Responsible AI

We have worked with our members to arrive at a consensus-definition of what that means.

The five core Principles of Responsible AI:

- Usefulness
- Fairness
- Safety
- Transparency
- Security and Privacy

Five principles become five operating questions

Responsible AI is not a slogan. It is a set of questions leaders must be able to answer before, during, and after deployment.

Usefulness	Fairness	Safety	Transparency	Security & Privacy
Will this improve a real clinical or operational outcome?	Who benefits, who is burdened, and how will variation be measured?	What can go wrong, and how will we detect and mitigate harm?	Can users see intended use, evidence, limits, and risks?	Are data, access, and system boundaries protected?
Decision standard: Working	Decision standard: Works for whom	Decision standard: Safe enough	Decision standard: Understandable	Decision standard: Protected

3

증빙

②

한-스페인 보건의료현황 및 인공지능·디지털헬스케어 전략 논의



③-1

OECD-Digital Health Team & KIHASA 향후 상호협력 논의



③-2

싱가폴 보건부 미래체계와혁신과, 보건의료기술정책과 면담



④

Responsible Scale of AI in Health-사전행사



⑤

Responsible Scale of AI in Health

